



# “연내 5위, 2006년까지 국내 1위 포털기업 만들 것”

글 신중훈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지난해 KTH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기반을 발판으로 디지털 미디어 게이트웨이로 변신, 포털기업 가운데 5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이사회를 거쳐 KTH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송영한 신임사장은 올해 KTH의 도약을 위해 ‘올인’ 하겠다고 밝혔다. 송 사장이 제시하는 디지털 미디어 게이트웨이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전달하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개념으로, 콘텐츠의 종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콘텐츠 공급소를 말한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KTH는 올해 통합포털 시장에서 선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적극적 M&A를 통해 단기간에 트래픽을 증대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KT그룹의 역량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콘텐츠 개발을 위해 콘텐츠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추진하

고, 직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여기에 유무선 통합포털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운영시스템 및 경영인프라 개선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 사장은 “단기간에 업계 선두권으로 올라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다”며 “다른 포털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도 고려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밝혀 여타 사이트와의 M&A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송 사장의 계획과 함께 KTH는 올해 사업추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우여곡절을 거쳐 KT의 ‘한미르’를 편입시켰고, 올해 중에는 KTF의 ‘매직앤’까지 통합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KT그룹이 갖고 있는 모든 콘텐츠 자원들을 KTH로 집중시켜 국내 최대의 유무선 멀티미디어콘텐츠 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7월 새롭게 선보이게 될 KTH의 통합포털사이트가 업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다. 송 사장은 이번 통합포털사이트 구축 및 마케팅을 위해 올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사장은 “오는 7월 한미르와 기존의 하이텔을 통합한 통합포털사이트를 오픈하면서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에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번 통합포털사이트는 기존의 포털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무장한 새로운 포털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송 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새롭게 선보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KTF의 매직앤 통합에 대해 송 사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 사장은 “매직앤 통합은 아직 논의하기 어려운 단계”라며 “KTH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같은 KT의 그룹사이지만 매직앤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KTH가 KTF보다 무선콘텐츠 사업도 더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계열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송 사장의 지론이다. 